소년단
SO NYON DAN
1955. 7

즐거운 여름 방학의 하루

평양 제7녀중 인민반 소년단원들

김창규 촬영

앞표지— 동해 바다'가에서

함남 신창군 충흥 인민학교 소년단원들

리종근 촬영

김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

—한설야작 《만경대》에서—

원수는 자연에서만 아름다운 것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서 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찾았습니다.

원수에게는 자기보다 네살 아래인 동생이 있었습니다. 원수는 뿌영게 장난을 치다가도 문득 동생의 귀여운 얼굴이 떠와서 달려 들어가서는 잠자는 동생을 기웃이 들여다 보군 했습니다.

한번은 동생의 손'가락을 지긋이 입에 물고 혼자 어르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꾹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동생이 깨여나 울음을 터쳐서 겁결에 뎅경 들어 업고 추슬러 주었습니다.

원수는 어려서부터 기운이 세서 동생을 업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불 같은 정열을 가진 원수는 귀엽이 벅찰 때 마다 동생의 목을 껴안고 디굴디굴 가댁질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동생 뿐 아니라 남의 아이들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동무들을 친 동기나 다름 없이 생각했습니다. 원수는 어려서 부터 아버님이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원수가 네댓살 때에 한번 아버님이 어미없는 갓난애기 울음소리에 밤을 자지 못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원수의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은 이 집으로 오는 것을 즐겨했고 의심

조심 없이 아무때나 뛰여들었습니다. 동네 꼬맹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잣바람으로 눈을 비비며 선참 달려 오는 것은 이 집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달음박질 내기도 하고 뜀뛰기내기도 했습니다. 숨박꼭질도 하고 술레잡기도 했습니다.

단오절이 건듯 지나면 벌써 대동강에 나가서 멱도 감고 자맥질도 했습니다. 누가 물 속에 오래 박히나 내기도 하고 물쌈질도 했습니다. 이런 내기에서 원수는 언제나 이겼습니다.

물쌈할 때 아이들은 눈을 감고
두손으로 원수의 얼
에 물을 되는대로
끼 얹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모
아 서서 눈을 가느
름하게 뜨고 상대되
아이의 얼굴을 슬
슬금 보아가며 두손
물을 듬뿍 떠서 바
그애 코'구멍에 쳐
었습니다.

그러면 부리나케
비던 아이도 얼마 가
지 않아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 담
른 아이가 또 들어섰
니다. 그러나 그 애도
또 지고 맙니다.

그러나 원수는 자
질은 다른 아이들보
약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지 못
했습니다. 자기의 이 약점을 발
견했을 때 어린 원수는 감연히
이 약점과 싸워야 할 것을 생각
하였습니다. 그래 다른 아이보
다 자맥질 련습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 련습은 물론 괴
로웠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이
괴롬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이 놀음에서
아이들에게 졌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꾹 참고 근기 있게 련습했습니
다. 그래서 어느덧 이 놀음에서
도 이길 수 있게 되였습니다.

아이들은 또 편놀이, 편쌈

을 했습니다. 원수는 자기 편에 동뜬 아이들을 뽑아 왔습니다. 평일에 달음박질, 자맥질할 때 근기 있고 슬기 있는 아이들을 보아 두었다가 그런 아이들을 제편으로 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편이 늘 이겼고 원수는 움직일 수 없는 도장수로 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령리합니다. 언제까지나 우수한 아이들을 원수 편에 밀몰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겐뽕 해서 뽑자우》.

아이들은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장겐뽕을 해서 이기는 아이들을 한편으로 하고 지는 아이들을 다른 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늘 원수편이 이겼습니다.

원수는 아이들의 약점과 장점을 잘 알기 때문에 편을 짜는데 배치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약하던 아이들을 슬기롭게 부추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하던 아이도 원수편에 끼면 강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원수편에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만길이란 아이가 원수편에 뽑혔는데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증손이 대장하문 안할래》하고 자빠지는 시늉을 했습니다.

《너 와 그러니?》.

아이들이 괴이해서 물었습니다.

《증손이가 때리는거 뭐》.

하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편쌈 때에 만길이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아서 다 이겼던 편쌈이 후딱 뒤집혀졌습니다. 그래 원수는 분김에 그 애를 때렸던 것입니다.

하긴 그것 뿐이 아니고 평소에 원수는 만길이를 좋지 못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만길인 저보다 약한 아이를 구박하고 또

남의 불에 게 구우려는 잔꾀 많은 아이였습니다. 또 어려울 때는 뒤로 돌고 펴일 때는 남의 발등을 밟고 나서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려오던 감정이 어저께 불시에 터졌던 것입니다.

《야, 그럼 만길인 저편으로 가고 수돌인 우리 편에 오문 되지 않니?》.

한 아이가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그때 원수가 나서며

《아니야. 야, 만길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지 말구 우리 싸워보자. 옛다, 네가 대장 되라》하고 자기 머리에 동였던 붉은 수건을 만길의 머리에 동여 주려 했습니다.

《난 싫어》

만길은 그것을 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와 그래. 네가 대장하려마. 내가 잘 싸워 줄게 잉, 그럼 이긴다. 이겨》.

원수가 그러니까 만길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제사

《네가 대장해라》하고 원수에게 수건을 도로 내주었습니다.

《그럼 넌 안할래》.

《한다. 나두 하자우》.

그리고 만길이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녁 밥을 먹을때, 원수는 아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강동 사립학교 선생으로 가 있었는데 마침 일요일이 되여서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아버지, 나 다신 동무 안 때릴래》.

《언제 때렸니?》.

하고 아버님은 물었습니다.

《때렸어. 그래 날 대장 노릇하문 싫다구 그랬어》.

《동물 때리문 못써 지거든… 나쁜 아이라도 좋게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네편이 되지》,

아버님은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주었습니다.

《글쎄 주재소 일본 순사네 아이는 너이들 속에 끼였을 것 같지 않고…》.

《그까짓 새끼 왔다가 죽을라구…》.

원수는 일본 아이가 정수리에 피도 마르기 전부터 조선 아이들을 깔보고 《요보》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놈의 애비—주재소장 놈이 지난 봄 청결 때에 검사를 왔다가 청결이 잘못되였다는 동티로 수돌 아버지를 때려 코피를 텐 일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돌 아버지는 착하고 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사놈은 제게 맞설듯한 사람은 그저 깔보고 욕질이나 하지만 어리무던하고 말이 없는 사람은 쩍하면 때리고 차구부리고 하였습니다.

원수는 생각할수록 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가 강동에서 돌아오자 찌근거리며 맨먼저 그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는 지금도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왜놈 미운 생각에 사근 코를 쫑긋쫑긋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길인 네 동무지. 네편 아니냐. 좋은 아이야》하고 아버님은 말했습니다.

《다신 안 때릴래. 나 잘못했

다구 그랬어》.

《잘 했다》.

《그래서 그때도 편짝 해서 또 이겼어. 만길이두 좋다구 그랬어》.

사실 이런 장난도 원수의 지혜와 량심을 키워주는 한가지 훈련으로 되였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 말을 들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아들은 벌써 제 한 일을 스스로 돌볼줄 알고 제 맘을 저로서 바르게 가늠할 줄 아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것이 자라면 사람은 크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버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일평생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을 여러 사람 본 일이 있습니다. 또 자기 한 잘못을 언제까지나 고치지 못하고 되풀이 하는 사람도 적잖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없을가.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일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없을가……이런 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누구와든지 늘 이런 것을 념두에 두고 말했습니다. 연설에서도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노릇 하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날 조선 사람은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영의 아침!

정 서 촌

또 하루 야영의 아침은 밝았다…

산 허리에 감도는 아침 안개 헤치며
기상 라팔소리 울려 오누나.
동무들아 어서 자리를 걷어차고
천막문을 활짝 열어 제치자.

붉게 타는 아침 노을
솟아 오르는 눈부신 해'살
새들은 숲 속에서 노래하고
시냇물은 맑고 맑게 흘러 내리누나.

아 얼마나 아름다운
조국의 산과 숲과 시냇'물이냐
얼마나 좋은
야영의 이 아침이냐.

동무들아 가슴을 헤치고
아침 해'살 안아 들이자.
두팔을 활짝 벌려
씨언한 산바람 들여 마시자.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면
령을 넘어 울리는 이 산마루
그렇다, 여기는 조국의 고지,
인민군대 아저씨들 지켜주신 고지

군기를 날리며 포탄을 헤치며
원쑤를 휘몰아 달려간 자욱마다
오늘은 푸른 숲 우거지고
나비들은 온 종일 춤을 추누나

동무들아 어서 높고험한 저봉우리
영웅의 봉우리로
오르자, 밝아오는 아침해'살속에
기'발을 휘날리며 씩씩하게 오
르자.

꽃구름 피여나는 봉우리에 올라
아득히 펼쳐진 푸른 들과
눈 아래 일어서는 새 마을
산과 숲과 시내
아름다운 조국을 굽어 보자.

또 한밤 날이 새이면,
더욱 푸르러진 숲을 헤치고
또 다른 봉우리에서
가슴마다 붉은 넥타이 기'발처
럼 날리자.

…조선 소년단 평양 제4 인민 학교 대에서…

신 진 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대동강 물'결 우에 붉게 비칠 무렵— 소년단원들은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며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명승지 모란봉 공원으로 줄지어 오릅니다.

이윽고 모란봉 공원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자 소년단원들은 《우등'불 모임》을 가지기 위하여 부벽루를 감도는 대동강 기슭에 둥글게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우등'불 모임》을 알리는 류랑한 라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년단 대 기'발이 오르고 단 지도원 선생님의 《우등'불 피엿!》 구령이 내렸습니다. 우등'불을 피울 영예를 지닌 운복 동무가 성냥을 그어 불을 지폈습니다.

우등'불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등'불을 둘러싼 어린이들 속에서 누구인가 시 《백두산》의 한구절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우등'불이 밤을 태운다—
무쇠 같이 장벽을 내려 누르는
캄캄한 밀림의 밤을……

그러자 독창시는 어느듯 합창시로 변해갔고 합창시는 다시 전체 소년단원들의 우렁찬 《김 일성 장군의 노래》로 바뀌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은 소년단원들의 얼굴과 가슴들을 환하게 비치며 조국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불타는 심장처럼 더욱 더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소년단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당과 수령의 따뜻한 품속에서 즐겁게 배우며 뛰노는 행복에 찬 기쁨과 웃음꽃이 피여 났습니다

소년단원들의 초청을 받아 모임에 참가하신 작가 박 인범 선생님으로부터 "김 일성 원수의 어린 시절"이야기가 시작되였습니다.

원수님은 어렸을 때 집뒤 울안에 있던 복숭아 나무에서 무르익은 복숭아를 따선 맛있고 붉깃붉깃 한 큰 알을 골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올리고 나서야 남은 것을 동무들과 꼭 같이 나누어 잡수시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원수님이 열 세살 나던해 아버지가 계시던 무송현으로부터 수천리 길을 혼자서 떠나 그리운 고향 집으로 오실 때, 부족한 려비도 아껴 쓰시며 절약하셨다가 학교를 다니실 때 학비에 보태여 쓰셨다는 이야기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수님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을 항상 존경하시였고 정직하고 용감하셨으며 조국을 한없이 사랑하시였어》.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소년단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원수님의 훌륭한 아들딸답게 더욱 잘 배우며 자라기 위한 굳은 결의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자라는 기쁨을 자랑하며 소년단원들은 즐거운 노래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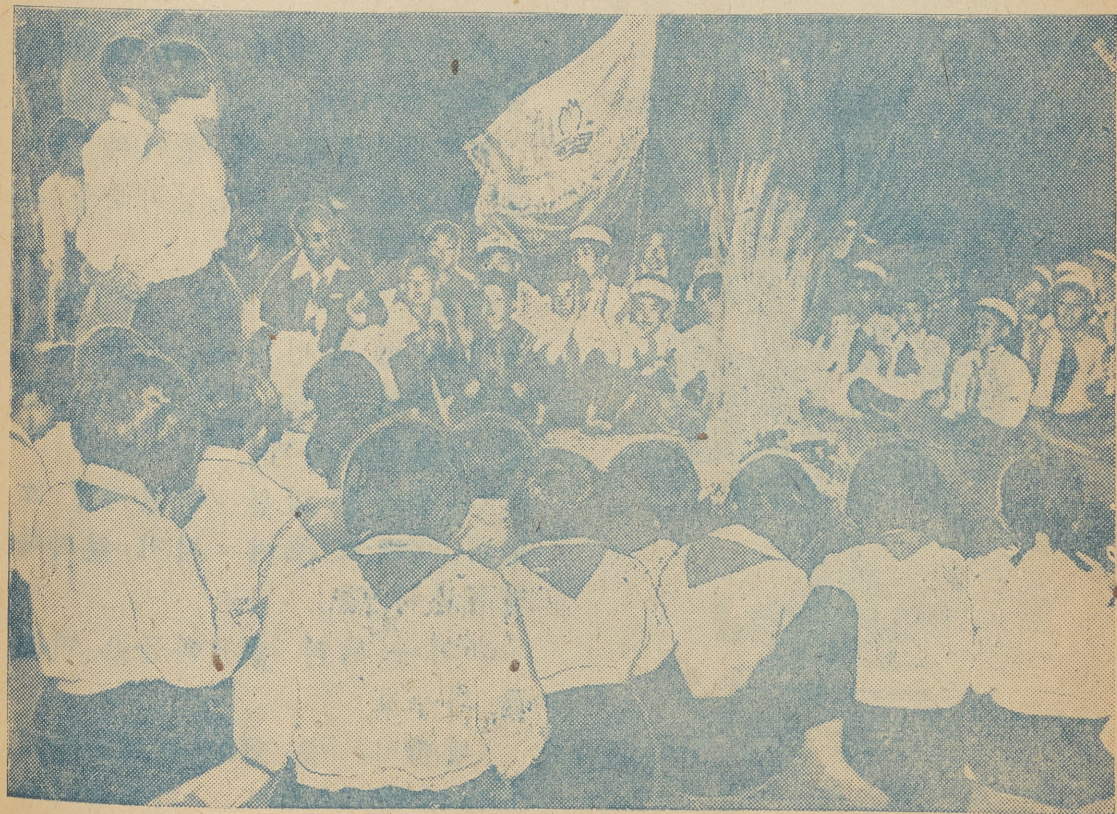
맨처음 아꼬데온 반주에 맞춰 합창 《대동강》과 《삐오네르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어둠이 깊어 갈수록 소년단원들의 노래'소리는 더욱 우렁차게 울렸고 우등'불은 더욱 세차게 활활 타올랐습니다.

어린 음악가 광연 동무가 독창 《우리는 맹세한다》를 부르자 혜자와 운복이는 《어린 삐오네르들의 노래》중창을 불렀습니다.

우등'불 모임은 흥겹고 씩씩한 노래와 춤 지랑송 등 즐거운 프로에 따라 계속되였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는 별들이 반짝이는 민주 수도의 밤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넓고 푸른 저 하늘에
우리의 기'발 높이 날리며
나아가자 씩씩한 조선 소년단
김 일성 원수의 뒤를 따라서
조국의 강철 같은 아들 딸
되자……

즐거운 이 한밤. 우등'불은 소년단원들의 앞가슴에 달린 휘장의 불'길처럼 꺼질 줄 모르고 더욱 세차게 활활 타오릅니다.

황 찬 주

해가 쨍쨍 내려 쬐는 여름 한낮이였습니다.

이따금 실바람이 불어와 교실 앞 꽃밭의 빨간 봉선화들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꽃밭 한구석에 외따로 선 봉선화는 잎을 간들 간들 하며 한데 모여선 동무들을 비웃었습니다.

《얘들아! 더워 죽겠지? 그렇게 빽빽히 모여 서서 얼마나 괴롭겠니?》.

그러나 여러 봉선화들은 미소를 띄우고

《괜찮아, 좀 덥긴 해도 함께 있는 것이 좋아》하고 말했습니다

《흥 더운게 좋긴 뭘 좋아. 한데 엉켜서니 아름다운 빛도 나지 않고》하고 외따로 선 봉선화는 깔깔 웃었습니다.

이때 한 봉선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빛나질 않아. 우리들의 빨간 꽃은 한데 뭉쳐 더 아름답지》.

《바보 같은 소리, 그만 둬. 소년단원들은 외따로 선 나를 더 사랑하거던. 그건 내가 더 빛나기 때문이지》.

외따로 선 봉선화는 또 대'구 하였지요.

이때 바람이 불어와 외따로 선 봉선화를 흔들고 지나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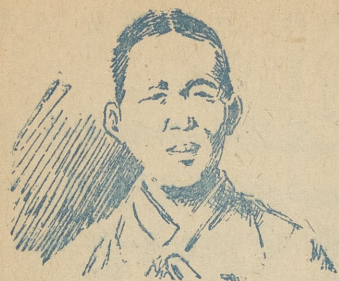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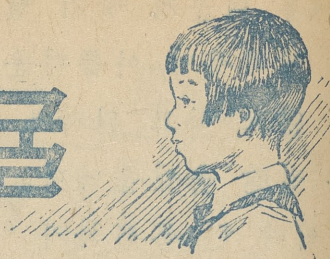
《아이 선해, 너희들은 이런 것을 모를거야》.그는 더욱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새가 서늘해지더니 검은 구름'장이 날아오며 굵은 비'방울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차츰 억수로 퍼붓고 세찬 바람이 학교 교실 창문을 울리며 앙앙 불어칩니다.

잠시 후에 소나기는 멎고 다시 해'빛이 내려 비쳤습니다.

꽃밭의 봉선화들은 세찬 바람비를 겪었으나 더욱 싱싱한 잎과 빨간 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 우쭐대던 외따로 선 봉선화는 꽃이 찢어지고 뿌리가 뽑히여져서 땅에 쓸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얼굴

함북 어랑 제2녀중 1년2반　리　해　수

몸이 괴로울 때
내 마음 즐거울 때
속으로 가마니 외워지는 말
《엄마》…하고,

즐거우나 괴로우나
떠오르는 모습
웃으실 때
눈'가에 잡히는 잔 줄음'살은
아마도 젊어서 고생한 탓이겠
지…

이마에는 흰 머리칼이 나붓겨도
울 엄마는 젊어서 참 예뻤을거야

울 엄마 제일 가는 기쁨은
5점이 줄지어 씌여진
내 통신부를 받는거래요.

공화국의 훌륭한 딸이 되라시
면서…

해질 무렵 책가방 들고
타박타박 문어구에 다다르면
《인제 오니…》하고 껴안을듯
반겨 주는 울 엄마,

나를 보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라곤 없는듯
인자하신
울 엄마 얼굴

울 엄마 얼굴을 보면
나도 엄마처럼
마음이 즐거워져요.

고향의 자연속에서

…평북 의주군 중단 인민 학교 대에서…

리　기　봉

동쪽 산마루 우에 아침 해가 얼굴을 내밀고 금빛 해'살을 뿌립니다.

향토 답사를 떠날 소년단원들에게 고향의 아침은 오늘 따라 류달리 아름다웠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답사대원들은 김 영주 동무가 그린 고향의 략도를 땅 우에 펼쳐 놓고 행군 행로와 휴식 장소, 도중에서 할 여러가지 일들과 유희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논합니다.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출발이다!

독고 상길 동무를 책임자로 한 향토 답사대원들은 기쁨으로 설레이는 가슴에 아침 해'별을 담뿍 받으며 무둥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명랑하게 소년단 행진곡을 부르며 씩씩하게 걸어 갑니다. 답사대원들은 행군 도중에 《누가 더 잘 관찰하며 기억하는가》의 놀음을 합니다.

어느덧 무둥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 보십시요. 고진강에 흘러 드는 개굴물이 장마철에 산으로부터 날라다 놓은 흙이 오랜 세월을 두고 쌓이고 쌓여서 무둥섬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하고 지도원 선생은 강물에 패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모래, 자갈, 부식토 등이 여러 층으로 쌓인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김 영주 동무는 여기서 관찰한 것을 략도에 그려 넣었으며 신 자성 동무는 무둥섬의 전설을 적었습니다.

오랜 옛 적에 박박골에 사는

농민들이 여기에 와서 농사를 지어 거둔 곡식을 외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곡식 데미를 무덤 모양으로 쌓아 두군 했다고 하여 《무덤섬》이라 불리여 왔으며 그말이 오래 전해 내려 오면서 《무둥섬》으로 변했다는 전설이 였었습니다.

답사대원들은 다시 길을 떠나 벌떡 고개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몹시 궁금했습니다.

—논밭도 없고 인가도 없는 분지,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 볼 수 있을가? …

어른들에게서 여기에 분지가 있다는 것은 들어 왔지만 직접 가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개 마루에 올라 분지를 내려다 보는 답사대원들의 기쁨은 컸습니다.

벌써 한낮이 기울었습니다.

《누가 더 잘 관찰하며 기억하는가》의 놀음에서는 신 창길 동무가 으뜸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개굴을 몇번 건넜으며 어디에 어떤 집, 바위, 로목이 있었는가, 길이 어떻게 갈라졌는가 등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휴식이 끝나자 벌떡 고개 분지의 식물과 동물 채집을 시작했습니다.《누가 더 많이 채집하는가?》의 내기를 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답사대원들은 식물들을 한아름씩 안고 돌아 왔습니다.

이름을 아는 식물 90여종과 이름을 모르는 식물 30여종을 채집한 조 금숙 동무는 동무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축산 기술자인 최 인환 선생은 츩, 싸리, 헤아리베찌, 그리고 멀구, 다래들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축 사료가 무진장입니다. 그런데 무진장한 훌륭한 사료들을 지금은 산'짐승들이 먹어 버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여기에 목장을 만들면 좋겠네!》.조 규명 동무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여기에는 훌륭한 목장이 건설될 것입니다. 협동 조합에서는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사대원들은 최 인환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분지를 굽어 봅니다.

답사대원들은 이번에는 개굴을 따라 박박골로 향하였습니다.

개굴의 량쪽에는 깊숙한 골짜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골짜기들에도 가축 사료로 될 식물들이 무성해 있었고 낮으막한 산들에는 작잠(섭누에)을 칠 수 있는 어린 떡깔나무들이 무성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협동 조합에서 치기 시작한 작잠은 앞으로 더 많이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옥수수 농사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축산과 잠업으로 이름난 고장으로 될 것입니다》. 향토 답사를 떠나기 며칠 전에 《우리 마을의 앞날》에 대하여 말씀한 중단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최 영호 아저씨의 이야기를 향토 답사에서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훌륭한 축산, 잠업 기술자도 많아야 하겠지!—

향토 답사대원들 앞에는 빛나는 고향의 앞날이 떠올라 기쁨으로 가슴이 후뭇해졌습니다.

고향의 지리와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찬 향토 답사록을 안고 답사대원들은 돌아오는 길에 올랐습니다.

향토 답사대원들의 얼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욱 빛났습니다.

꽃피는 열두삼천리벌

열두삼천리'벌! 이 넓고 넓은 무연한 벌에서 농사를 지어온 옛날의 농민들은 언제나 하늘만 쳐다 보며 살았습니다.

봄이면 봄마다 매마른 땅에 흙을 째고 벼'종자를 뿌리고는 비오기를 안타까이 기다리군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 농민들의 오랜 소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열두삼천리'벌에서는 미제 원쑤들이 불지른 전쟁 때문에 중단되였던 평남 관개 공사가 또다시 시작되여 벌써 지난 4월에 계획보다 한달앞서 제1 계단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리하여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거리의 두배나 되는 수로가 열두 삼천리'벌에 늘어졌고 바다에로만 흘러 내리던 청천강 물 줄기는 목 말라하던 열두삼천리'벌에 물결치며 흘러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놓고 농사를 짓게 되였구나—이곳 농민들은 지금 아득히 넓은 열두삼천리'벌의 기름진 논배미를 자랑스럽게 바라 보지요.

오는 가을에는 제1 계단 공사에서 새로 물을 대인 1만 여정보의 논에서 2만 여톤의 곡식을 지난 해보다 더 거두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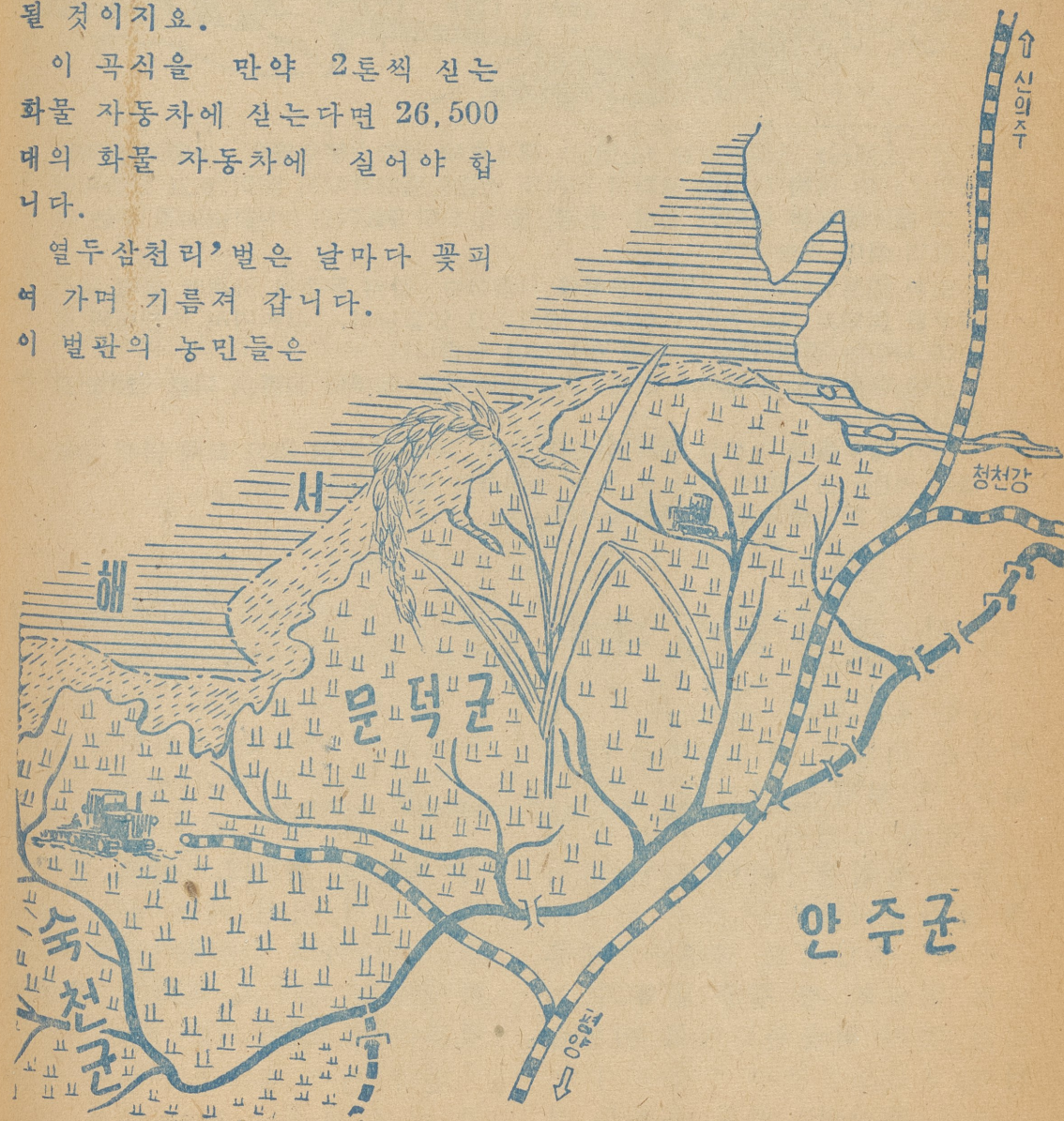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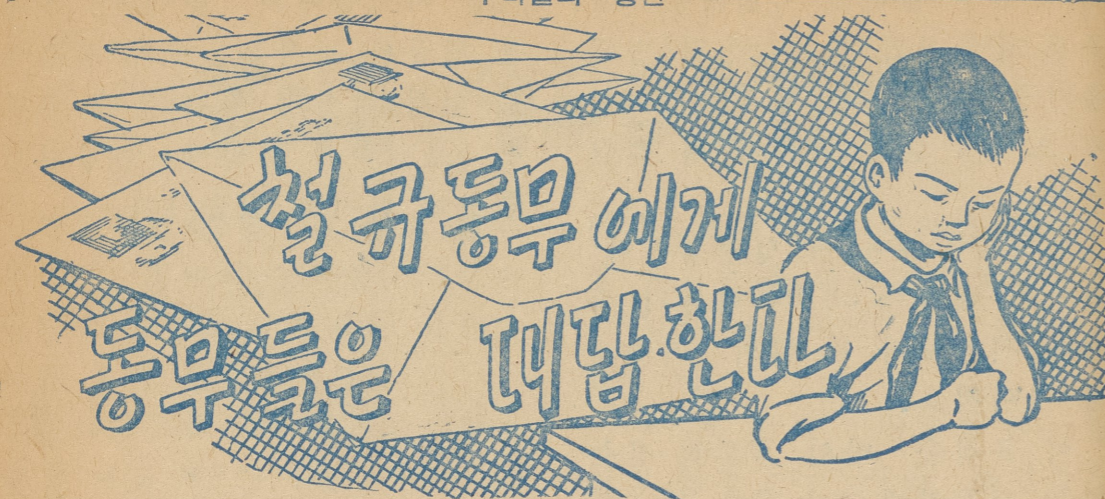
그리고 래년까지 제2 계단 공사가 전부 끝나면 이번에는 대동강 물줄기가 열두삼천리'벌에 흘러들어 1만 5천 여정보의 논에 또다시 물을 대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가면 이 열두삼천리'벌에서 해마다 53,000여톤의 곡식을 지금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이지요.

이 곡식을 만약 2톤씩 싣는 화물 자동차에 싣는다면 26,500대의 화물 자동차에 실어야 합니다.

열두삼천리'벌은 날마다 꽃피여 가며 기름져 갑니다.

이 벌판의 농민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날마다 행복을 베풀어 주시는 당과 정부와 김 일성 원수의 이 따뜻한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들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철규동무에게 동무들은 대답한다

지금 《소년단》 편집부에는 《소년단》 제4호에 실린 《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 대한 대답이 공화국 각지의 소년단원들로부터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의지가 굳센 소년단원이 되여야겠다고 수천이에게 주는 충고들이 씌여 있습니다.

또한 일선이에게는 참말로 동무를 사랑하는 참된 우정을 가져야 하며 자기 동무를 참되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이와 일선이 사이는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동무들은 편집부에 보낸 편지에서 용운 동무의 행동도 나쁜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 동무들의 그릇된 점을 보고도 고쳐 주려고 하지 않고 본체 만체 하는 것은 소년단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자들의 편지 두장을 실립니다.

★ ★

참된 동무들이 되자

나는 《소년단》 제4호에서 《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를 읽고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우리 분단 동무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 분단에도 길주군 쌍룡 인민 학교의 김 철규 동무가 편지한 것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분단의 명월 동무는 복습을 잘 하지 않고 숙제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선생님에게 숙제장을 바치는 것이였습니다.

명월 동무는 자기 이웃집에 있는 대위원 순희 동무의 학습장을 그에게 묻지도 않고 빌려다가 베끼며 어떤 때는 《학습장을 좀 보자》하고 울럭다짐으로 빌려다가는 그대로 베끼여 선생님에게 내군 했던 것입니다.

반장 정옥 동무는 명월 동무의 이와 같은 그릇된 학습 태도를 알면서도 《이제 곧 선생님에게 드러나겠지》하고 고쳐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이것을 알자 모두 그들을 도와 주려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분단에서는 분단 모임을 가지였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그것을 다만 그들의 잘못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분단 전체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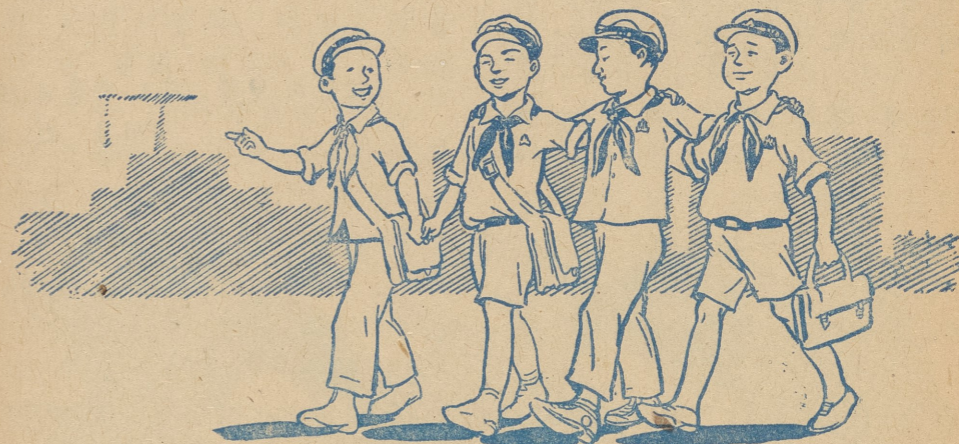
분단 모임에서는 명월 동무와 정옥 동무 그리고 순희 동무의 그릇된 행동을 분단 전체가 고쳐 주기 위하여 힘쓰자고 의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분단 동무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그들과 더욱 친한 사이가 되면서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잘 하도록 따뜻한 손'길을 돌려 주었습니다.

그들도 분단 동무들의 이와 같은 참된 우정을 느끼게 되였으며 분단 동무들이 한결같이 빛내려는 분단의 영예를 자기들이 떨어뜨렸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그릇된 행동은 고쳐지고 있습니다.

열성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이 한 마음이 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길주군 덕산 인민 학교 대
5분단 위원장 김 춘자

참된 동무와 거짓 동무

김 철규 동무의 편지를 읽은 나는 김 철규 동무네 분단에 있는 그 일이 남의 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대 제6 분단 조 준재 동무와 권 석규 동무는 일선 동무나 수천 동무와 비슷한 동무였습니다.

권 석규 동무는 학습에 게을러서 다른 동무들에게 뒤떨어졌기 때문에 선생님으로부터 따로 숙제를 받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김 석규 동무는 새 잡이로 방학을 보냈습니다. 조 준재 동무는 석규 동무가 자기 힘으로 숙제를 하며 공부하게끔 도와 주지 않고 제가 한 숙제장을 빌려 주고 베끼게 했습니다.

권 석규 동무는 조 준재 동무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작난'감과 연필 같은 것을 주기도 했습니다.

두 동무는 자기들 사이를 친한 사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후 선생님에게 낸 권 석규 동무의 숙제장은 선생님이 따로 더 내준 것이 아니고 다른 동무의 것을 베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분단에서는 곧 《참된 동무와 거짓 동무》 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가지였습니다.

조 준재 동무와 권 석규 동무가 친한 것은 정말로 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년 소설 《친한 동무》, 《네 동무》등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동무에게 거짓 동무가 되는 것은 자기 동무를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길로 이끌어 가며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무들이 참된 도움을 준다면 김 철규 동무네 분단에 있는 그 동무들의 그릇된 행동도 고쳐지리라고 믿습니다.

강원도 평강 제1 중학교 대
위원장 **리 완기**

우렁찬 평화의 목소리

— 평화 애호 력량 대표자 대세계 회의 —

순희 동무네 반 동무들은 시사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마을의 민주 선전실장 아저씨를 찾아 갔지요.

아저씨는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지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분란의 수도 헬싱키에서 열린 《평화 애호 력량 대표자 대 세계 회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반 동무들은 모두 아저씨가 가리키는 구라파의 서북쪽에 놓여 있는 분란의 수도 헬싱키에 눈이 쏠렸지요.

—아저씨 이번 회의에는 어떤 나라의 대표들이 모이였어요?

반장 순희 동무가 먼저 물었지요.

—이번 회의에는 쏘련, 중국, 조선, 월남 그리고 인도, 카나다, 뉴 질랜드 등 68개의 나라에서 온 1천8백4십1명이나 되는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동무들, 그럼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많은 대표들이 모였다는 건 무얼 말해 줍니까?

—아저씨, 그건 지구 우에 살고 있는 모든 인민들이 한결 같이 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광철 동무가 대답했습니다.

—잘 대답했습니다. 지구 우에 살고 있는 모든 인민들은 서로 말과 얼굴 빛은 다르지만 한결 같이 평화를 원하고 있답니다. 이 평화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우렁차게 울려 나지요. 오직 전쟁을 원하는 놈은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한줌도 못되는 제국주의자들 뿐이랍니다.

—아저씨, 그럼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을 의논하였어요?

아저씨는 반 동무들의 물음에 하나 하나 친절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응,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 드리지요. 대표들은 저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화목하게 모여 의논하는 방법으로

전쟁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국제 긴장 상태)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그리고 원자탄을 비롯하여 단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여러 가지의 위험한 무기들을 쓰지 못하게 하며 각 나라들에서 군대의 수를 줄이며 이와 함께 군사비 (군대나 무기를 만들기 위한 비용)도 줄여야 한다고 토론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일본 대표가 제의한대로 일본이 10년 전에 미제의 원자탄 폭격을 받은 날인 8월 6일을 원자 무기를 반대하는 투쟁의 날로 정할 것을 결의하였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세계 인구의 $\frac{1}{4}$을 차지하고 있는 중화 인민 공화국이 반드시 유·엔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국의 섬 대만에서 외국 군대가 하루 속히 물러 가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저씨, 조선에 대한 문제도 의논하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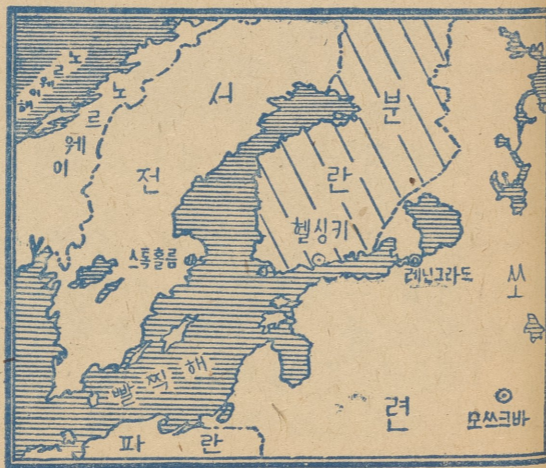
—물론이지. 모든 대표들은 조선과 독일이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공화국 대표단 박정애 단장은 조선 문제는 반드시 조선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말하였지요. 모든 대표들은 이 토론을 한결 같이 지지해 나섰답니다.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반 동무들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 막고 있는 미제와 그의 앞잡이 리 승만 역도들에 대한 증오심에 북바쳐 올랐습니다.

아저씨는 끝으로 반 동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전쟁을 떠버리는 놈들이 제 아무리 미쳐 날쳐도 오늘 온 세계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는 평화의 목소리를 막아 낼 수는 없지요. 우리 조국은 반드시 조선 사람들이 한결 같이 원하는대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고야 말 것입니다.

아저씨의 이야기가 끝나자 반 동무들은 세계 지도 우에서 이번 회의에 참가한 나라들을 하나 하나 찾아 보았습니다.

한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 한분 살았지요.
열 두살 난 아들
어린 문석이와 함께

(1)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어머니와 아들은
지주네 밭에서 구슬땀 흘리건만
날이 갈수록 살림은 구차해 가고
어머니의 몸은 날마다 쇠약해 갔지요.

(2) 드디여 어머니가 병에 걸리니
집안은 더욱 가난에 쪼들리고
살길은 더욱 캄캄해졌지요.
—어떻게 하면 약을 구할가?
문석이는 날마다 근심하였지요.

(3) —고을에 가서 종노릇하여서라도
어머니에게 약을 구해 와야지!
결심을 다진 어린 문석이
강을 건너 고개를 넘어
또 숲 속 길을 걸어
멀고 먼 고을로 길을 떠났지요.

(4) 어린 문석이 숲속 길로 갈 때
뜻박에 사슴 한마리
앞발을 추켜 들고 나타났지요.
문석이 보고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듯이,

(5) —사슴아. 넌 내게 무얼 원하니?
—문석아 나를 좀 도와 줘.
발에 박힌 이 가시를 뽑아줘
사슴의 앞발 살펴 보던 문석이
이'발로 가시를 뽑아 주었지.

(6) 그리하여 사슴과 함께
문석이 숲속 길을 걸어 갔지요.
그런데 웬 일인지
함께 가던 사슴은 갑자기 없어지고
그자리엔 아름다운 인삼꽃 한포기

(7) 문석이는 기뻐하며 인삼을 캐여
가던 길 되돌아 집으로 왔지.
—어머니 이걸 잡수세요.
—네가 어떻게 인삼을 얻어 왔니?
문석이는 어머니께 사슴 이야기 해드렸지

(8) 어느날 이른 새벽 문석이 잠 깨니
누가 문을 뚜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것은 숲 속에서 만난 귀여운 사슴.
—사슴아. 어머니는 병이 나았단다.
사슴의 몸을 쓰다듬으며
문석이도 어머니도 감사 드렸지.

(9) 붉은 해'님 솟아 오를 때
사슴은 다시 숲속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웬 일일가.
흙무지 우에 콩알 다섯개 놓여 있었지.
문석이가 손에 쥐자
그것은 황금의 콩알로 변하였지요.

(10) 이리하여 황금 콩알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졌지요.
욕심 많은 지주놈은 황금 콩알 탐내였지
문석이와 어머니가 밭으로 나간 다음
지주놈은 황금 콩알 훔쳐 내였지.
그러자 그것은 보통 콩알로 변했지.

(11) 지주놈이 성을 내여 중얼거릴 때
지주놈 문 앞에 사슴이 나타나
—남의 피를 빨아 먹는 너 같은 놈에겐
황금의 콩알도 보통 콩알로 변한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말하였지.

(12) 욕심 많은 지주놈 활을 재우고
숲속으로 돌아가는 사슴을 뒤따랐지요.
—황금 콩알을 내놓라!
지주놈은 눈알 부릅뜨고 소리쳤지요.

(13) 이때였지요. 천천히 걸어가던 사슴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번개와 우뢰가 울리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지주놈 눈 앞에는
성난 범 한마리 입 벌리고 달려 들었지요

× ×

마을 사람들은 그 후 이 지주놈을 보지 못했습니다. 욕심 많고 마을 사람들의 피땀을 빨아 먹던 지주놈은 범의 밥이 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앙 기상대 천문부 최 환

달 없는 밤에 하늘을 쳐다 보십시요. 거기에는 마치 많은 보석들을 뿌려 놓은 듯이 별들이 반짝거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무들은 그 별들이 얼마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주 적게 보이지만 그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리만큼 대단히 큰 것입니다.

만일 우리 지구를 좁쌀알이라고 치면 그 별들은 큰 축구 뽈만큼 큰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의 지구보다 130만배나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들은 이 태양보다 더 훨씬 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극성의 크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보다 아주 작게 보이지만 그의 크기는 태양의 직경보다 약 30배 가량 더 큰 것입니다.

이상에서 동무들은 한가지 의심을 가지게 되였을 것입니다. 즉 그와 같이 큰 것이 왜 우리 눈에는 그렇게 작게 보이게 되는가? 하고…

밤 하늘에서 별들이 그와 같이 작게 보이는 것은 그 별들이 우리들에게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별들의 거리는 도대체 얼마나 될가요? 동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거리를 재는데는 동무들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는 너무 짧아져 도저히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는데 《광년》이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빛이 1초간에 약 30만KM의 속도로 비쳐나간다는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밝은 전기 불을 한번 빤짝 켜면 그 빛은 1초 후에는 30만KM 만큼 앞을 비치며 1년 후에는 9463에 0을 9개 더 붙인 KM 앞으로 비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1광년이란 곧 빛이 1년 동안에 달리는 거리 즉 9463에 0을 9개 더 붙인 KM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 중에서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로서는 〈쁘로키시마〉라는 별이 알려져 있는데 그 거리는 3•6광년에 달합니다.

동무들이 맑게 개인 밤에 하늘을 쳐다 보면 북쪽 하늘 끝에서 남쪽 하늘 끝까지 하늘의 중앙부에 길게 뻗친 마치 구름과 같이 보이는 은하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하수는 얼른 보기에는 구름과 같이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들도 역시 많은 별들이 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별들은 얼마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가요?

그 별들은 몇만 광년 몇십만 광년이라는 놀라우리 만큼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무들이 잘 알고 있는 직녀성은 그 거리가 29•5광년이므로 지금 우리가 보고있는 직녀성은 동무들이 이 세상에 나오기 퍽 전에 즉 약 30년 전에 반짝한 별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빠르다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서 라도 일생 동안에 그 별들에게까지 도달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무들은 그 별들의 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때가 있습니까? 동무들이 아무리 빨리 그 별들을 센다 하더라도 밤이 새일 때까지 다 세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수의 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쪽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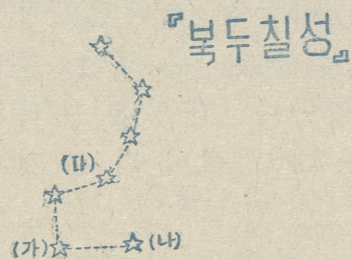



그림 1

사람들이 별을 보는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별들만 하더라도 약 3천개 가량됩니다. 그리고 저 남쪽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또한 그만한 수의 별들을 보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별을 보는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별들만 하더라도 거의 6천개에 달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별을 보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별들을 본다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작은 별들도 볼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별들을 많은 선생님들이 세여 보았는데 그 수는 약 16억이란 놀라운 수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사실들을 머리 속에서 생각하면서 어떤 밝게 개인날 밤 많은 별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보십시요.

그러면 동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쉽게 알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별들은 항상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낮에 보는 해'님과 같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모든 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시오뻬아』

그림 2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무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무들이 일년 동안 계속해서 별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요.

그러면 동무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만일 동무들이 어떤 별을 봄에 동쪽 하늘에서 보았다면 가을에는 같은 시각에 그 별을 서쪽 하늘에서보게 되고 돌아오는 봄에는 다시 동쪽 하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별들을 보고 시간들도 알아 내였던 것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도 천문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시계는 그것이 제아무리 잘 만들어지였다 하더라도 꼭 맞는 시계는 없고 얼마만큼 떠지거나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잘 맞는 시계는 하늘의 별 밖에 없습니다. 매일 라디오에서 알려 주는 시간도 별을 망원경으로 보고 그 시간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우리들은 별을 보고 지구상의 위치를 알아 낼 수도 있습니다.

동무들이 영화나 그림에서 해군들이나 배'사람들이 이상한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이상한 망원경은 《륙분의》란 것인데 바다에서는 이것으로서 별들을 봄으로써 그 배의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는것입니다.

이와 같이 밤 하늘에서 수 없이 반짝거리는 별들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밖에 나가서 알기 쉬운 몇개의 별들을 찾아 봅시다.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에 제일 먼저띄우는 것은《북두칠성》일 것입니다.

이 북두칠성의 《가》《나》의방향으로 5배 가량 앞으로 떨어진 곳에 동무들은 한개의 밝은 별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별은 북쪽을 가리킨다고 해서 "북극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북두칠성의 《다》별과 북극성을 련결한 방향으로 앞으로 연장하면 W자 또는 M자 형태의 5개의 밝은 별을 볼 것입니다.

이 별은 《가시오 뻬아》라고 부르는 별입니다. 이 별들은 북극성을 사이에 두고 그 주위를 하늘에서 빙빙 돌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에 북극성 주위를 거의 한바퀴 돌게 되므로 우리는 시계가 없어도 그 별들의 자리를 보고 대략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이 주어먹는 새

《모이 주어 먹는 새》를 만들려면 두꺼운 마분지가 필요됩니다.

마분지가 준비되면 먼저 마분지 우에 그림과 같은 《새》 두개를 적당한 크기로 그린 다음 곱게 오려 내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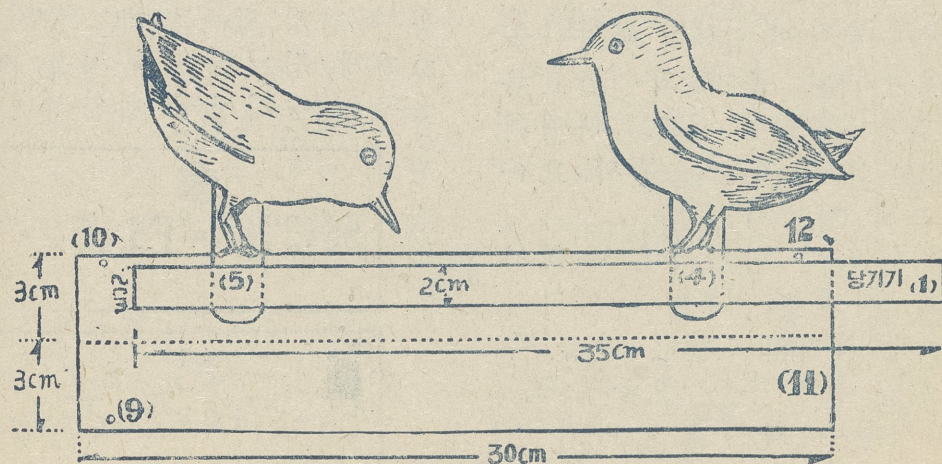
그리고 길이 35cm 너비 2cm의 규격으로 마분지를 오려내여《당기기》(1)을 만듭니다. 이 《당기기》에다가 미리 오려낸 《새》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점(3)과(4)에 가는 쇠줄로 고정시키시요 (새가 마음대로 돌 수 있게).

그다음 길이 30cm, 너비 6cm의 규격으로 밑판 (2)를 만듭니다.

이 밑판 중심에 점선을 긋고 점선에 따라 그 밑판을 량쪽으로 꺾은 다음 그 웃부분에 《새》(7)과 (8)을 밑판의 점 (5)와 (6)에 가는 쇠줄로 고정시킵니다 (역시 새가 마음대로 돌수 있게).

그리고 점선을 중심으로 꺾은 밑판을 접어(9)와 (10), (11)과 12를 실로 맞잡아 맵니다.

다음에 당기기 (1)을 당기여 보시요. 그러면 《새》(7)과 (8)이 번갈아 모이를 주어 먹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강원도 법동군 룡포 인민 학교
소년단 지도원 김 경화

이 놀음은 많은 소년단원들이 한꺼번에 놀 수 있는 놀음입니다.

놀음을 진행하기 위하여 심판원은 가로 6cm 세로 3cm의 쪽지에 유희 참가자들에게 알맞는 여러가지 산수 계산 문제를 써 넣습니다.

쪽지는 참가자의 수에 따라 그림과 같이 홍, 청 두가지를 만들고 한가지 문제를 홍 청에 각각 한표씩 써 넣습니다.

모든 계산 문제는 나머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홍 청에 각각 한문제만은 나머지가 나오게 하고 그것을 《비밀 쪽지》로 정해야 합니다.

홍, 청 두편의 각 쪽지들의 답은 전체 쪽지의 $\frac{3}{10}$에 해당하는 쪽지만 《비밀 쪽지》의 답보다 적은 답이 나오게 하고 나머지 쪽지에는 모두 《비밀 쪽지》보다 답이 크게 합니다.

준비가 되면 심판원은 유희자들에게 《비밀 쪽지》는 나머지가 생기는 쪽지라고 알린 다음 쪽지를 뒤섞어서 뿌려 놓습니다.

유희자들은 쪽지를 하나씩 집어 들고 쪽지에 있는 홍, 청 표식에 의하여 두패로 갈라 섭니다(거리는 적당히). 그리고 유희자들은 곧 문제를 계산해 내야 합니다. (계산 시간은 1분내로 하되 반드시 암산으로 하고 답도 머리 속에 외여 두어야한다)

심판원의 신호가 울리면 유희자들은 서로 달려 나가면서 상대편 동무를 따라 잡습니다. 따라가 먼저 잡은 유희자는 상대편 동무의 답을 묻고 자기의 답도 알린 다음 서로 답을 검토합니다. 이때 문제의 답이 큰 쪽지를 가진 동무가 답이 적은 동무의 쪽지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검토한 결과 답의 수는 많다 할지라도 잘못 계산하여 틀리게 대답했을 때에는 옳게 대답한 동무에게 쪽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쪽지를 빼앗긴 동무는 유희에서 제외되며 둘이 다 계산이 틀렸을 때는 둘이 다 유희에서 제외됩니다.

비밀 쪽지

홍
80+70-90+60=

청
80+70-90+60=

일반 쪽지

만일 답이 서로 같을 때에는 다시 헤여져서 다른 동무를 따라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희를 진행하는 동안 《비밀 쪽지》를 찾아 내야합니다.

《비밀 쪽지》를 빼앗으려면《비밀 쪽지》의 답보다 자기의 답이 적은 수라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유희자들은 서로 자기의 쪽지를 빼앗긴 다음에 상대편 동무의 답을 자기편 동무에게 알려 주어서는 안된다).

유희는 《비밀 쪽지》를 빼앗은 편이 승리자로 됩니다.

평북 벽동군 영풍 인민 학교
소년단 지도원 리 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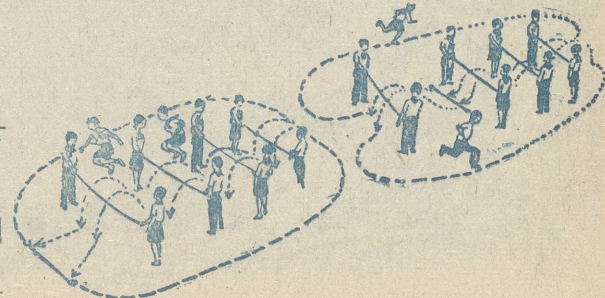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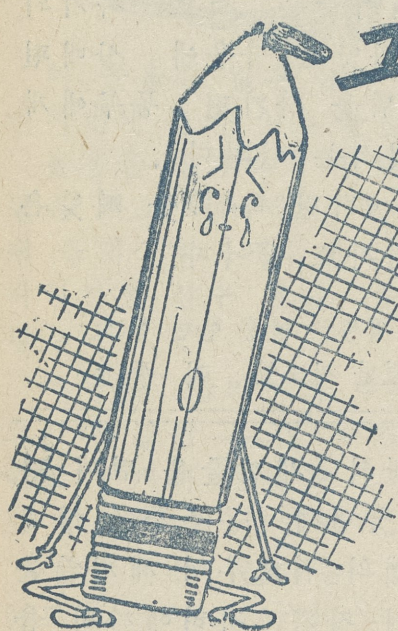
련달아 줄넘기

이 놀음은 짝수가 되게 두팀으로 갈라진 다음 두명씩 짝을 지어 각각 새끼 줄을 마주 잡습니다. (새끼줄의 높이는 50cm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심판원이 신호를 하면 각팀의 첫 두 동무는 마주 쥐였던 새끼줄을 그자리에 놓고 자기 팀의 뒤로 달려가 새끼줄을 하나하나 뛰여 넘습니다.

자기 자리에까지 다 뛰여 넘어 오면 다시 자기의 새끼줄을 마주 잡습니다.

그러자 곧 다음 두번째 쌍이 새끼줄을 그 자리에 놓고 우선 첫째번 쌍의 새끼줄을 뛰여 넘은 다음 첫번째 동무들이 한대로 자기편의 뒤로부터 새끼줄을 뛰여 넘어 자기 자리에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각팀 쌍들은 순서대로 계속 합니다.

이리하여 세번 이상 새끼줄을 닿치지 않고 상대편보다 더 빨리 마지막번째 쌍까지 끝낸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윤 복 진

—아이 참 속 상해.
　나는 주인을 잘못 만났지

　그래 보름도 못되여
　나는 그만 난쟁이가 되였담…

연필은 사각사각 가느단 소리로
수남이를 쳐다보고 말했네.

—너는 그래 어쩌자구
　오늘 저녁만도 두번이나 부러
　　뜨리니.

그러나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수남이
책상에다 연필로 작난만 치네

　—그래 수남아

반 동무 영이를 좀 보려무나

언제나 조심 조심 깎아 쓰고
쓰고 나면 필통 속에 잘 간수
　해 두지.

연필은 사각사각 애타는 소
　리로
수남이를 쳐다보고 말했네.

—오늘도 선생님은 연필 이야기
　　하셨지.
　숱한 아저씨들의 땀이 스며
　　있는 이야기를.

그러나 이 말씀 이내 잊은 수
　남이
아무렇게나 깎아 마구 쓰고
　있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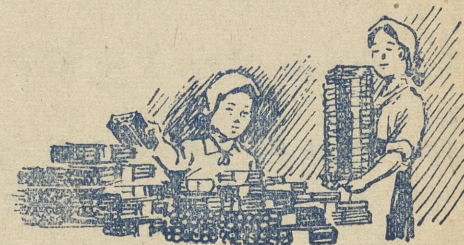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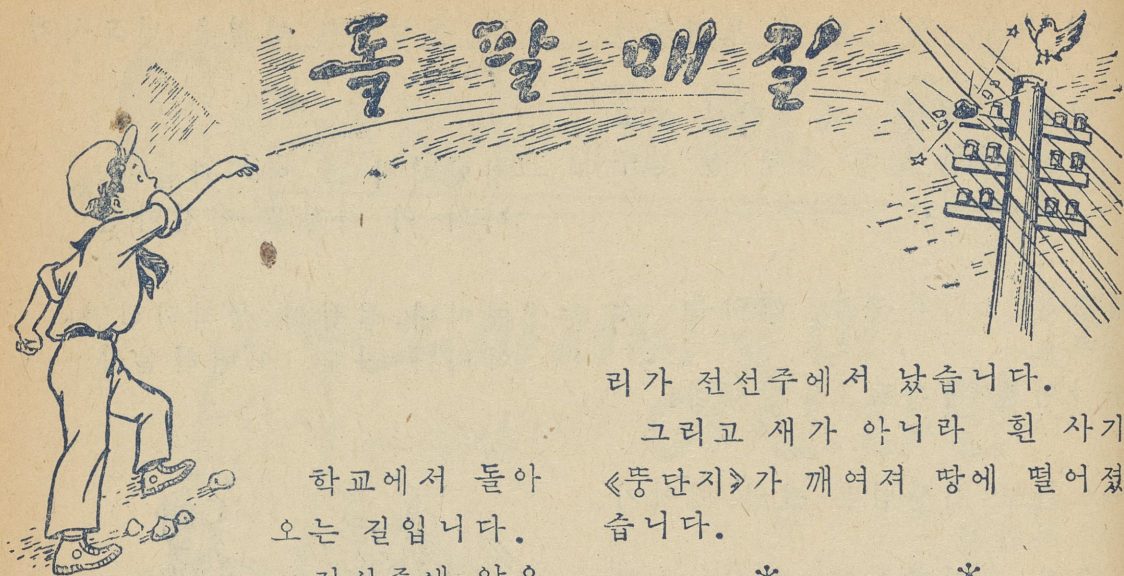
연필은 그만 원망스러워
두 눈을 감고 생각을 하네.

산을 넘어 그 몇백리
떠나온 고향의 연필 공장을.

오늘도 공장 아저씨들은

땀 흘리시며 연필을 만드시겠
구나.

—정말이지 그 아저씨들이
　나의 이 사정을 아신다면

　얼마나 섭섭히 생각하실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가……

학교에서 돌아 오는 길입니다.

전선주에 앉은 새들을 보자 작난꾸레기 춘길이는 집에 가다 말고 돌팔매질을 시작했습니다.

힘껏 힘을 주어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곧바로 날아 올라 갔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벌써 춘길이가 팔매질하는 모습을 보자 훌훌 하늘로 날아나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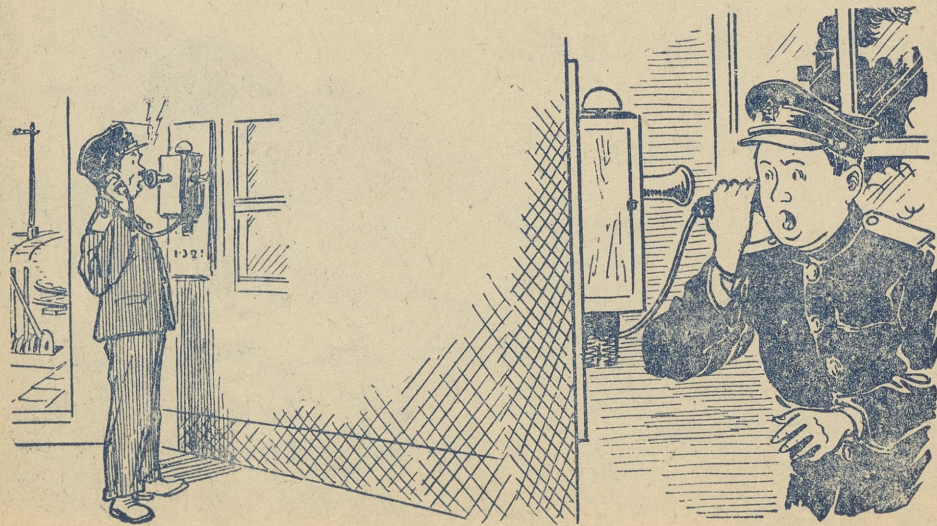
그러자 쨍강—웅웅웅—하는 소리가 전선주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새가 아니라 흰 사기 《뚱단지》가 깨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　　　*

이때 ××역장 아저씨는 기차를 출발시키려고 이웃 역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이웃 역장 아저씨가 든 수화기에는 쨍강—웅웅하는 소리만 들리고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떠날 시간은 다 되였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역장 아저씨는 어쩔 줄 모릅니다.

화분의 꽃

선생님은 도서실에 화분을 가져다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화분을 정성껏 돌본다면 도서실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가시자 소년들은 화분에 둘러 서며

《참 이쁜 화분이구나! 꽃이 피면 더욱 이뻐지겠지!》하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화분을 가꾸는 건 어렵지 않아, 물을 하루에 한두번씩 주면 그만이지…》.

또 한 소년이 이말에 대'구했습니다.

《그렇구 말구! 나도 우리 집에서 화분을 가꾸는데, 그건 쉬운 일이야!》.

모두들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 주는 소년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꽃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누렇게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것을 보시고

《화분의 주인들은 많은데, 이것이 웬일입니까?…》하고 놀래시였습니다.

갈 게

나는 마을의 농민들이 땀흘리며 새로 파 올린 수로 동뚝 밑에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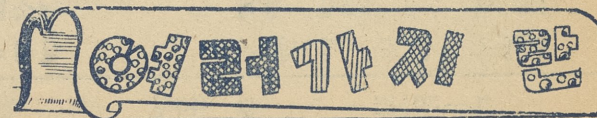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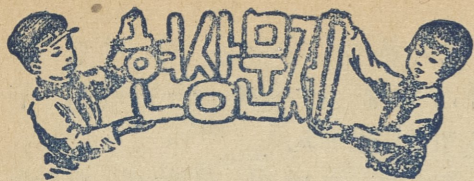
하루는 내가 동뚝 밖으로 놀러 나왔지요. 그런데 동뚝을 걸어오던 두 소년단원이 나를 보자 《갈게》《내가 먼저 봤어》하고 서로 다투면서 나를 잡으려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집으로 달음박질 쳤지요。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동뚝 밑을 허물어 내기 시작했지요.

나는 그들이 동뚝을 왼통 허물가 두려워서 깜쪽같이 물 속으로 헤염치며 달아났습니다.

한참 후에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내 집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뚝을 막 파헤쳐 놓지 않았겠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소리 쳤지요.

—얘들아, 보'물이 동뚝 밖으로 새여 흐르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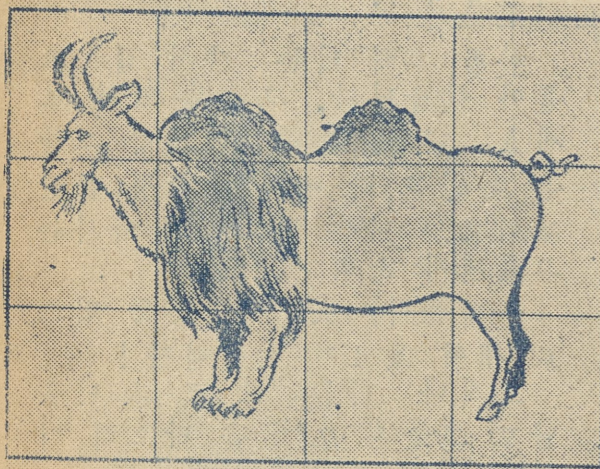
그러나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들은 보'물을 막으러 여기로 찾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할아버지가 다행히 찾아 오지 않았더라면 보'물은 논으로 흘러 내리지 않고 왼통 밭으로 흘러 내릴번 했습니다.

동물 찾기

옥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줄을 친 종이 네개에 각각 한가지씩의 동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을 각각 4등분하여 그 한 부분($\frac{1}{4}$)씩을 모아 그림과 같이 맞추었습니다.

옥희는 처음에 무슨 동물들을 그렸을가요?

옥희가 그린 동물들의 이름을 알아낸 다음 그 동물들의 모양을 그리십시요.

5호 현상문제 해답 및 당선자 발표

답

모음 한자 때문에 그렇게 되였다.

봉선이가 일홍에게 자기 인형을 크다고 자랑하였을 때, 일홍이가 《작지 않다》고 대답했어야 할 것이다. 《작지 않다》와 《적지 않다》는 모음 한자의 차이지만(ㅏ, ㅓ) 의미는 아주 딴판으로 된다. ("크다„의 반대어는 "작다„이며, "많다„의 반대어는 "적다„이다)

당선자

강원도 금강군 제3중학교(인민반) 김유중
강원도 안변군 중강 인민 학교 전창조
평양 제13중학교 (인민반) 강명자
개성지구 개풍군 문산 인민 학교 양철영
함북 경성군 제2중학교 (인민반) 리정자
함북 종성군 행영 인민 학교 최혜순
함남 덕성군 양승 제1 인민 학교 전창조
함남 허천군 통흥 인민 학교 정기엽
평북 삭주군 수풍 인민 학교 문영호
평북 염주군 서림 인민 학교 황규백
평남 상원군 상하 인민 학교 김무남
평남 대동군 창덕 인민 학교 최미덕
황북 토산군 토산 인민 학교 리복남
황북 신계군 은점 인민 학교 리용직
황남 은천군 제4중 (인민반) 한승익
황남 연안군 제3중 (인민반) 정학성
량강도 백암군 황토 인민 학교 리대섭

편집 위원——김 주 현 (주필) 김 창 호 원 홍 구 리 순 길
강 효 순 리 배 형 림 홍 은

1955년 7월 1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5년 7월 20일 발행 《소년단》 1955년 제7호 (총70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0111 값 40원 총배포처——체신성 출판물 관리국

이책들을 읽읍시다!

민주 청년사에서는 소년단원들을 위한 책들을 많이 출판하였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 책들을 읽고 감상합시다.

책은 소년단원들의 친한 벗입니다.

이 책들은 동무들의 지식을 넓혀 줄 것이며 동무들을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길러 줄 것입니다.

소 설 **아동 혁명단** 한 설 야 지음

중편소설 **쾌활한 꼬마 가족** 느·노쏘브 작 / 계 형 수 역

동 화 **크 안데르쎈 동화집** 김 회 순 / 윤 영 승 역

자연 과학 이야기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봄여름가을편) 느·쁘라위리쉬꼬브 저 / 리 윤 식 역

중편소설 **양사령의 소년 선봉대** 귀 쉬 작 / 리 순 영 역

우리의 공작실 조 화 석 / 김 원 필 편

소설 동화집
완두 꼬투리 김 원 필 / 윤 영 승 역

동화시 **쓰·마르샤크 동화시집** 백 석 역

만 화 **하늬 바람의 편지** 김 도 빈 글 / 림 영 환 그림

동화시집 **매미와 개미** 리 호 남 지음

동 화 **동무와 원쑤** 박 인 범 지음

만 화 **영길이와 태길이** 박 웅 호 글 / 백 인 균 그림

전 기 **박 연암 선생** 윤 세 평 지음

아름다운 금강산